

「한-미 조선협력센터」 추진 본격화

- 산업통상부, 美 상무부와 조선협력센터 설립 및 협력 MOU 체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5.8(금) 13:50,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 임석 하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를 체결*하였다. 양 부처는 동 MOU에서 공동 연구개발, 기술교류, 직접투자 등 기업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양국 조선 인력 양성·교류와 조선산업 관련 정보공유 등에 있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명자 : (韓) 산업부 통상차관보 - (美)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특히, 양 부처는 상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현지(워싱턴 D.C., 잠정)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Center, 이하 센터)’ 설립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센터는 협력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등과 함께 양국 기업간 협력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면서 美 조선소 생산성 개선, 인력양성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26년 66억원).

* 사업기간 : ‘26~’28 / 주관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참여기관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금일 체결된 MOU를 통해 양국은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추진 의지와 함께, 센터 설립에 대한 미측의 지지 의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향후 설립되는 센터를 통해 양국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발굴·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현지법인 설립, 공간 확보, 인력 파견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신속하게 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구체적인 성과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이영종 (044-203-4336)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5658)